

# “경주협회 F1대회 취소 권한 없다”

## F1조직위 “심의·공인 미룰뎠 FIA에 중재 요청”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가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F1대회조직위원회가 “자동차경주협회가 (F1 대회를) 취소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1 대회 개최 및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소할 권한 없다”=F1대회조직위는 “F1 대회의 모든 상업적 권리를 갖고 있는 FOM(Formula One Management)과 국내 프로모터인 카보가 개최권 협약을 맺은 만큼 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예컨대 한 프로모터가 대규모 국제배구 대회를 유치했는데 한국배구협회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자동차경주협회가 국제자동차연맹(FIA·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이 국가별로 공인한 하나의 단체(ASN·National Sporting Authority)라는 점에서 올해 대회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한 조직협정서 체결 및 경기 운영계획서 마련 등 행정적 협의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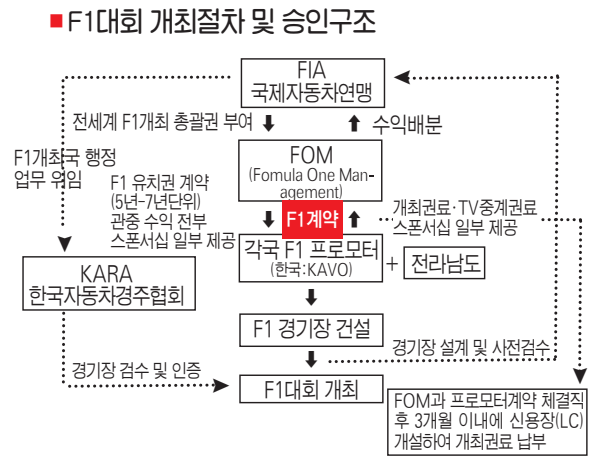
F1 조직위는 또 “경주협회가 국내에서 치러지는 대회에 대한 공인 및 심의 권한이 있지만 공인을 미룰 경

우 FIA측에 적극적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협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공인이라 처리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지난해의 경우 3월 22일 조직협정이 체결된 만큼 시간적 여유도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KAVO 조직개편 전 발생한 공인비 및 대회 운영요원 교육추진비 잔액 등은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계약 체결, 어떻게 되길래=F1 대회는 FIA가 주관하는 대회로, 콩코드협약에 따라 FOM이 각국의 프로모터와 개최권 계약을 통해 처리된다. 콩코드협약은 지난 2000년 10년간 F1 개최총괄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FIA와 FOM간 맺은 협약으로, 지난 2009년 재협약에 따라 F1에 대한 FOM의 상업적 권리는 2012년까지다.

FOM은 이 과정에서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를 위해 MBH(엠브릿지홀딩스)와 2010년부터 7년간 계약을 체결했고 MBH가 KAVO에 자본을 투



연번	개최국(지역)	대회기간
1	바레인	사키르 3.11~13
2	호주	멜버른 3.25~27
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4.08~10
4	중국	상하이 4.15~17
5	터키	이스탄불 5.06~08
6	스페인	카탈루냐 5.20~22
7	모나코	몬테 카를로 5.26~29
8	캐나다	몬트리알 6.10~12
9	스페인	바르셀로나 6.24~26
10	영국	실버스톤 7.08~10
11	독일	니르부르그링 7.22~24
12	헝가리	부다페스트 7.29~31
13	벨기에	스파 8.26~28
14	이탈리아	몬자 9.09~11
15	싱가포르	싱가포르 9.23~25
16	일본	스즈카 10.07~09
17	대한민국	영암 10.14~16
18	인도	뉴델리 10.28~30
19	아부다비	아스 11.11~13
20	브라질	상파울로 11.25~27

자하면서 KAVO가 개최권을 갖고 지난해 첫 대회를 치렀다.

한국자동차경주협회는 FIA에 승인된 국내 모터스포츠를 총괄하는 유일한 단체(ASN·National Sporting Authority)로, F1 개최국의 행정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경기장에 대한 검수 및 인증도 맡고 있다. 지난해 서킷 검수 및 인증은 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참여하면서 이뤄졌다.

결국 개최권은 프로모터가 갖고 대회를 치르기 위한 행정 업무 및 운영요원 양성 등은 자동차경주협회가 맡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수백억원의 개최권료와 중계권료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협회가 제동을 걸 경우 대회가 취소될 수 있는 지 여부다.

F1조직위를 비롯, 전남도 안팎에서

“상식적으로 경주협회가 대회 개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 있다고 하더라도 수백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대회 개최를 취소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반면, 자동차경주협회측은 “경기주최자를 지명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포뮬러원 경기운영규정’과 FIA가 제정한 국제스포츠법전(International Sport Code)을 들며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대보름 당산제 정월대보름을 앞둔 1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주민들이 쌍암공원에서 가정의 행복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이날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는 ‘제13회 광산구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가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F1 대회 티켓 50%까지 할인

### 내달 2일부터 판매...전일권 비중 90%서 30% 정도로 줄여

10월 14일부터 3일간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에서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의 관람 티켓 판매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된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3월 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티켓 발매 행사 ‘그랜드 톤칭 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국내외에서 2011년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의 공식적인 입장권 판매에 들어가는 첫 행사로, 박준영 F1 조직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 정부 및 자동차 관련업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F1조직위는 대회 티켓 가격을 최초로 공개하고 온·오프라인 판매에 들어가는 것을 알리는 행사인 만큼 스포츠 전문방송사를 통해 생중계해 대회 개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올 대회 운영 및 교통·숙박 대책 등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F1조직위는 특히 지난해 대회 티켓가격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여론에 따라 작년보다 평균 30% 낮추

고 티켓을 초기에 구입한 구매자들에게는 할인 폭을 50%까지 높여주는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우선, 연습경기와 준결승전, 결승전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전일권의 비중을 지난해(90%)에 견줘 30% 정도로 줄이고 하루만 관람하는 일일권 비중을 7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메인그랜드스탠드 전일권(모든 경기 관람)의 경우 최고가는 89만원, 최저가는 18만원, 주력티켓 가격대는 38만원선으로 정했다.

지난해의 경우 메인그랜드스탠드 전일권은 최고가가 101만2000원, 최저가는 19만8000원짜리 티켓이 판매됐다.

아울러 준결승전이 열리는 토요일권의 경우 지난해(최고가 65만7800원·최저가 12만8700원)에 비해 각각 19만7800원, 4만1700원 내린 46만원, 8만7000원의 비용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F1조직위는 특히 티켓을 초기에 구입하는 구매자들을 위해 3월말까지나 최초 발매 1만장까지는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4월

말까지는 30%, 6월말까지는 20%, 8월말까지는 10%의 할인혜택을 주는 조기구매 할인제도(Early bird)를 도입하고 티켓컨소시엄이나 단체구매, 장애인, 청소년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도 병행해 티켓 마케팅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2011년 F1 대회의 공식출범을 알리는 행사인 만큼 올해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회 티켓판매는 인터파크(www.interpark.com)와 코리아그랑프리 공식홈페이지(www.koreangp.kr)에서 다음달 2일부터 이뤄진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F1 대회 개최권·중계권료 재협상중”

### 박원화 카보 대표



“퍼주기” 논란을 야기했던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TV 중계권에 대한 재협상이 추진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F1 대회운영법인인 카보(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 박원화 대표(사진)는 16일 “F1대회의 개최권료와 TV중계권료와 관련, F1대회의 상업적 권리를 갖고 있는 F1매니지먼트(FOM6Formula One Management)와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전남도청 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가급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에서 F1대회를 치르는 것이 희망이며 이와 관

련, FOM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체결된 개최권료와 중계권료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FOM측에 전달했으며 FOM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계약은 상대방이 있는 만큼 협의 결과는 낙관도 비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또 “조직위 확대에 따라 카보의 역할은 축소됐으며 카보는 계약체제로서의 대외교섭업무와 경주장 운영에 관한 업무만을 맡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내달 바레인 F1 개막전 차질 가능성

### 반정부 시위 여파

최근 중동 지역에서 확산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중동 국가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알자지라방송 인터넷판은 16일 국제자동차연맹(FIA)이 내달 바레인에서 예정된 포뮬러 원(F1) 그랑프리 2011시즌 개막전에 반정부 시위의 여파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버니 에클레스턴 F1 매니지먼트 회장은 “바레인에서 개막전을 열 것인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F1 개막전은 바레인에서 3월11일 연습 레이스를 시작으로 12일 예선, 13일 결선이 열린다.

이 대회는 개막전이라 통상 개막 10일 전부터 대회 관계자들이 도착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시위가 잦아들어야 정상적인 개최가 가능할 전망이다.

바레인에서는 최근 중동 지역에 번지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돼 15일까지 최소 2명이 사망했다.

에클레스턴 회장은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바레인 현지 관계자들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상황으로 보면 F1 대회를 열기에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올해 F1 대회는 바레인 그랑프리 시작으로 10월16일 한국 대회, 11월 27일 브라질 대회까지 모두 20라운드로 펼쳐진다.

/연협뉴스

대한민국입니다

# 세기보청기

##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경기점(합동점) 02-2276-057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약) 02-733-0220, 송파점(선릉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성점(구 시인회관) 03-421-2288, 부평점(부평역) 03-267-5110, 수원점(남문) 03-1246-5110, 의정부점(포천터미널) 03-1821-6655, 안양점(백산소방2001)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03-1658-5110, 용인점(용인내거리) 03-1336-1090, 오산점(공민은행 2층) 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03-2329-4400, 부산 사면점(사면로터리) 05-1818-8800, 서면점(서면역) 05-1256-7200, 울산 울산점(광명로터리) 05-26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05-5297-6060, 전주점(구 동명구청) 05-745-9870, 창원점(반야점) 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내거리) 05-3425-4440, 삼척점(삼척내거리) 05-3426-1511, 남양주점(아리랑터미널) 05-3425-7575, 경북 포항점(구경리) 05-4244-5110, 안동점(구 인동점) 05-4659-2248, 광주 광주점(구 도동) 06-2225-5110, 광주점(백동점) 06-2651-4477, 전남 순천점(순천사거리) 06-1752-8845, 전북 전주점(신복로터리) 06-2522-5728, 군산점(구 시청앞) 06-3446-0198, 익산점(백사시장거리) 06-3638-5900, 남원점(남원시장거리) 06-3632-2826, 대전 대전점(도동) 04-2254-5110, 대전점(충촌로터리)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04-2255-4900, 울산 천안점(천안역) 04-1653-2888, 광주점(공주문사거리) 04-1852-5110, 충북 청주점(천안로터리) 04-2222-1177~8, 충청점(삼천리) 04-3852-1414, 강원 강릉점(유정역) 03-3647-0588, 춘천점(말호점) 03-3523-5110, 제주 제주점(영등포터미널) 06-4753-4366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인증

ISO 13485인증 국제인증/의료기기

CE 0120 유럽인증

GMP 의료기기 제조인증

상담전화

##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